은혜로 새벽묵상 **(01/29/22)**

찬송 **: 379**장 **(**새 **204**장**)**

사도신경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1. 오늘의 말씀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에 있습니다.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게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참된 신앙생활을 산상수훈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 두 믿음**(21-23**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는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많은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불법을 행한다(현재 진행형)고 하시며 떠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의를 이루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엡 2:10).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야 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 <u>두 건축자**(24-27**절**):** 믿음의 종말</u>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생이란 집을 짓는 건축가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건축자가 집을 짓기 전에 땅을 파서 반석이 밑에 깔려 있나 보지 않고 모래로 다져진 겉모양만 보고 집을 짓게 될 수 도 있는데 이는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에는 모래가 굳어 반석처럼 보일 수 있어 반석위에 지은 집이나 다를 바 없지만, 비가 오는 겨울철에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과 교회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산상수훈 설교의 목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위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집을 멋있게 지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오늘의 기도

-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위에 세워지는 신앙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